



대한민국정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1. 6. 2.(수)	담당부처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	
문의	선정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박소정 과장(044-203-3031)		
	행사 관련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이지은 과장(044-202-2030)		

한국판뉴딜, 혁신으로 약자를 배려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 5월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건강관리팀 등 3개 사례 선정 -

-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건강관리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플로워'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다 - 김태홍 (주)오버플로우 이사
- 혁신적인 공간정보 활용체계 개선 '케이-지오 플랫폼' - 권우석 (주)웨이버스 전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사업의 5월 사례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건강관리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태홍 (주)오버플로우 이사', '권우석 (주)웨이버스 전무(PM)' 등 3개 사례를 확정해 발표했다.

어르신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건강관리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이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건강관리기구 [스마트밴드·자동혈압계·혈당측정기·체중계·인공지능(AI)스피커 등]를 제공하고 전용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오늘건강)과 연동해 어르신이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과 영양 관리, 생활습관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보건소 전담인력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생활실천을 관찰(모니터링)하는 등 지역 어르신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24개 보건소를 통해 어르신 1만 1,691명이 5만 1,875건의 운동과 영양관리서비스를 받았다.('21년 3월 기준) 특히 6월부터는 참여 어르신의 건강 변화와 재참여 의사, 만족도 등을 조사해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보건소도 올해 안에 현재 24개에서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를 담당한 이은상 교사(창덕중 미래교육 담당)는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한국판뉴딜이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과 약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했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이윤근 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 연구소)도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건강관리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사회의 모범 사례를 창출했다.”라고 평가했다.

저시력 장애인의 눈이 되어준 ‘플로워’ - 김태홍 (주)오버플로우 이사

인공지능(AI)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은 디지털뉴딜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 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오버플로우의 ‘저시력 시각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AI) 영상 인식 솔루션’(20년 인공지능 바우처 과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오버플로우의 김태홍 이사는 어린 나이에 선천성 백내장과 녹내장을 앓아 현재 왼쪽 눈은 실명하고, 오른쪽 눈은 잔존 시력이 0.02 이하인 중증 저시력자이다. 대학 시절 휴대용 망원경을 상용하고도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불편이 저시력자를 위한 확대 솔루션 ‘플로워(Flowy)’를 개발하는 계기가 됐다. 가격 부담이 크고 휴대가 번거로운 확대 솔루션 전용기기 대신 스마트폰에 장착된 인공지능 솔루션 ‘플로워’는 곳은 날씨나 밤낮 상관없이 버스를 빠르게 분류하고 번호를 음성으로 알려준다. 김태홍 이사는 앞으로도 비장애인과 정보격차 해소,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권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해나갈 계획이다.

심사위원 조규리 대표(기후변화청년단체 GYEK)는 “‘플로워’는 저시력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자, 기존에 없었던 독창적인 디지털기술”이라며 “한국판뉴딜이 비로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의 활성화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더욱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일궈낸 비용 혁신 - 권우석 (주)웨이버스 전무

20년간 공간정보 분야에 종사한 권우석 (주)웨이버스 전무(PM)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맞춰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클라우드)하는 공간정보 플랫폼을 기획, '21년 1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이하 케이-지오(K-Geo)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천여 종의 부동산정보와 국가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 기획재정부·감사원 등 470개 기관에 연간 4억 3천여 건 이상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성과도 거뒀다. 플랫폼이 확산하면 행정기관에서는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데이터 이·활용 및 접근이 쉬워져 공간정보 분야 신생기업(스타트업) 창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 한국판뉴딜 성과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우석 전무(PM)는 한국형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모델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특화된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플랫폼', '경산시 공간정보기반 소통행정 공간 플랫폼 구축' 사업이 그 결과물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이 지자체에 분산된 공간정보 수집체계를 통합할 경우, 연간 약 40억 원의 운영비와 데이터 처리 시간 단축에 따른 대폭적인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허정주(영향력자, 듀자매) 심사위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자원을 공유하는 국가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체계를 마련해 5년 동안 약 900억 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케이-지오 플랫폼 활용 시 연간 250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엄청난 예산 절감효과이므로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말했다. 또한 허영주(영향력자, 듀자매) 심사위원도 “공간정보 분야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에만 의존 하던 것을 넘어 공개(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플랫폼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5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 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 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뒤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 했다.


5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은상 창덕중 교사, 이윤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 연구소장, 조규리 기후 변화 청년단체(GYEK) 대표, 틱톡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듀자매’(허영주·허정주), 이언주 작가(유퀴즈 온 더 블럭 작가), 김주대 시인, 박미경 맘카페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6월 2일(수)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정부를 대표해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공지능·사물 인터넷 건강관리팀과 김태홍 (주)오버플로우 이사, 권우석 (주)웨이버스 전무(PM)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권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이달의 한국판뉴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한 사례들은 모두 디지털기술 혁신을 통해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포용사회로 전환하겠다는 한국판뉴딜의 비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국판뉴딜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나라가 더 나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5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선정 대상자 소개(요약)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 사무관 채수일(☎ 044-203-2971), (행사)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사무관 김영훈(☎ 044-202-2033)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I·IoT건강관리팀

이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I·IoT건강관리팀
한국판뉴딜 연관성	디지털뉴딜-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시범사업-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뉴딜

“AI·IoT와 함께, 오늘의 건강실천으로 늘 건강하게!”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을 방문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I·IoT건강관리팀이 지역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다. 약속 시각에 어르신 세 분이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좋은 거 준다고?”라며 밝게 웃는다.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건강 디바이스 (스마트밴드·자동혈압계·혈당측정기·체중계·시스피커 등)를 제공, 비대면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에게 스마트폰과 스마트밴드를 연결하고 ‘걸음 수 측정법’을 설명하니, “시계가 내 걸음 수도 알려주네? ‘오늘건강’ 앱에서 오늘 2천 걸음 더 걸어야 한대!”라며 신기해한다. 그리고 “나 운동해야 하니까 집까지 걸어야겠어!”라면서 분주히 발걸음을 옮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탄생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21년 3월 기준 1만1,691명에게 디지털 기기와 자동 알림서비스 등을 보급, ‘오늘처럼 늘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통연결 채널 앱 ‘오늘건강’을 개발·보급했으며, 시범사업의 효과성 확인을 위해 전국 24개 보건소를 선정, 전담인력 109명을 신규 총원(일자리 창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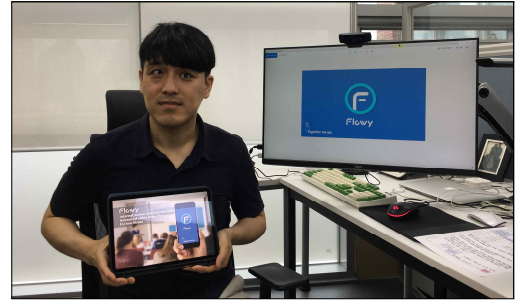
어르신 건강을 위한 디지털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속 개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비대면 사업’ 중 하나. 사업 추진 이후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 총 5만1,875건의 운동 및 영양 관련 개별 임무를 제공했고 △운영 전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 또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공공-민간기관-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한 판로개척 등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했다, 2021년도에는 서비스를 전국 24개에서 80개 보건소로 확대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비대면 건강관리 상담에 필요한 영역별 콘텐츠와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뉴딜 건강관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태홍 (주)오버플로우 이사

이름	김태홍 (주)오버플로우 이사
한국판뉴딜 연관성	디지털뉴딜-AI 바우처 지원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이동권 향상



AI 영상 인식 솔루션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이동권 향상 높여”

‘부담은 최소, 성과는 최대’

김태홍 (주)오버플로우 이사는 어린 나이에 선천성 백내장과 녹내장을 앓아 현재 좌안은 의안이고, 우안의 잔존 시력은 0.02 이하인 중증 저시력인이다. 대학 시절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를 타야 했는데, 휴대용 망원경을 들고도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불편함이 저시력인을 위한 확대 솔루션 ‘플로워(Flowy)’를 개발하는 계기가 됐다. 플로워는 사용자의 가격 부담 해소와 사용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굵은 날씨와 밤낮 상관없이 버스를 빠르게 분류하고 번호를 인식한다. 특히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음성 서비스는 플로워의 백미로 손꼽힌다. 어느 각도에서나 버스 번호를 간편하게 인식해 음성으로 서비스한다. 기존의 확대 솔루션이 목표물 확대에 그쳤다면, AI 기술을 접목한 플로워는 저시력인이 보기 원하는 목표물을 찾아 확인까지 가능하게 한다.

확대 솔루션 전용기기는 가격 부담이 클 뿐 아니라 휴대와 관리가 번거로워 활용도가 떨어진다. 반면에 스마트폰은 휴대성·편리성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솔루션을 탑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기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플로워를 장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서를 확대할 때 초점을 쉽게 맞추기 위한 제스처 인식, 버스 탑승 번호 인식 등 AI 기술을 접목, 기존의 확대 솔루션에서 기대할 수 없던 편리한 기능을 탑재했다.

(주)오버플로우는 사용자의 ‘최소 부담과 최대 이익’을 주는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종이도 필요 없는 전자필기도구 ‘버사 슬레이트(Versa Slate)’가 개발됐다. ‘버사 슬레이트(Versa Slate)’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접근방식의 제품으로 점자로 공부하는 학생의 수학 필산에서부터 직장인의 업무 메모까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판 디지털뉴딜 접목으로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AI 바우처 지원 사업과 연계·개발한 AI 영상 인식 솔루션은 현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이동권 향상을 위한 솔루션에 모두 적용돼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과 학습 환경 및 직무 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고가의 보조기기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강력한 독서 확대 솔루션을 장착할 수 있고, 기존에 불가능했던 원거리 스크린 화면 정보도 어느 위치에서든지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김태홍 (주)오버플로우 이사는 앞으로도 비장애인과 정보격차 해소,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및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국판 디지털뉴딜을 적극적으로 접목할 계획이다.

권우석 (주)웨이버스 PM

이름	권우석 (주)웨이버스 PM
한국판뉴딜 연관성	디지털뉴딜-국가공간정보플랫폼 구축-공간정보 생태계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모든 공간정보는 'K-Geo Platform'으로 통한다

외국산 SW의 종속성 탈피, 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시대 개막

20년간 공간정보 분야에 종사해온 (주)웨이버스의 권우석 PM은 한국판뉴딜 추진에 맞춰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을 기획, '21년 1월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이하 K-Geo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주도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많은 SW 개발자들과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했던 권우석 PM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다. 그것은 시스템 구축 시 고유한 업무 로직은 다르지만, 시스템 구현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의 활용과 공통적인 공간정보의 분석 및 처리를 똑같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우리나라 최초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플랫폼인 "GeOnPaaS" 출시를 추진, 공간정보 분야에서 외산 SW의 종속성의 탈피를 선언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플랫폼 시대를 열었다.

K-Geo플랫폼 구축은 특히, 디지털뉴딜의 전략 목표이자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데이터댐' 구축과 데이터 경제 실현, 신산업 육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공간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및 활용체계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외산 SW를 오픈소스와 국산 SW로 대체하는 사업. 국가공간정보 데이터댐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운영비 연간 40억, 행정비용 및 국민편익비용 연간 74억 원 절감

'GeOnPaaS'의 경험과 검증된 기술을 활용, K-Geo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 공간정보플랫폼 시대를 연 권우석 PM은 '한국판뉴딜'의 성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K-Geo플랫폼 구축으로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를 혁신, 약 2천 종의 부동산 및 국가공간정보를 실시간 취합해 기재부·감사원 등 470개 기관에 연간 4억3천여 건 이상의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권우석 PM은 검증된 한국형 공간정보플랫폼 활용 모델을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에 확대하기 위해 특화된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사업과 '경산시 공간정보기반 소통행정 공간플랫폼 구축' 사업이 그 결과물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국가공간정보플랫폼이 지자체로 분산된 국가공간정보 수집체계를 통합할 경우 연간 40억 원 정도의 운영비용과 비대면 처리 전환을 통한 데이터 처리 시간 단축 등 행정비용 및 국민편익비용도 연간 74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 공간정보시스템 중복 구축을 배제, K-Geo플랫폼 활용 시 연간 250억 원가량의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